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띄어쓰기 오류 양상 및 지도 방향

왕 원¹⁾
인하대학교

<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글쓰기 자료에 나타난 띄어쓰기 오류를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을 통해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띄어쓰기 교육 지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자료 30편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아울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의 글쓰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48회 띄어쓰기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오류(77.6%)는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오류(22.4%)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붙여 쓴 오류 중 ‘명사+명사’, ‘관형사(형)+의존명사’와 띄어 쓴 오류 중 ‘조사’의 오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고는 명사와 조사를 대상으로 연역적 측면과 귀납적 측면을 출발하여 띄어쓰기 지도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어 :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띄어쓰기, 오류 양상, 오류 원인, 교육 방향

1) 교신저자, wangyuan91@naver.com

I. 서론

최근 한국어 교육 기관이나 중국 대학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 가운데 한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단순히 말하기와 듣기로 그쳐서는 안 된다. 쓰기 영역도 한국어능력시험의 중요한 부분으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쓰기를 잘하려면 문법, 어휘, 맞춤법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띄어쓰기는 맞춤법에 속하는데 실제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한국어 전공이며 한국어를 오랜 학습자이고 초·중급 때 글을 쓸 때 잘못 띄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뿐만 아니라 함께 한국어를 배운 다른 학습자들도 띄어쓰기 오류를 범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띄어쓰기를 잘 습득하여 오류를 줄이는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한글 맞춤법에 따라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띄어쓰기가 안 되면 문장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경우는 교착어인 한국어와 달리 고립어이므로 조사와 어미 등의 문법 요소가 발달한 것이 아니라 어휘와 어순에 의해 문장이 이루어진다.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는 것이 중국어의 큰 특징이다. 이런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글쓰기 자료에 띄어쓰기 오류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한국어 띄어쓰기 오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띄어쓰기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본고의 목적이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띄어쓰기에 관한 연구는 정효민(2012), 완자미(2012), 유정(2013), 이혜경(2013), 박자범(2014), 박봉수·박덕유(2015), 하안나(2016), 송유주(2016) 등이 있다. 띄어쓰기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띄어쓰기 오류 유형이 크게 차이가 없고 모두 유사한 오류 유형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띄어쓰기 오류 유형만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띄어쓰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어야 한다.

II. 중국인 학습자의 띄어쓰기 오류 양상 및 원인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중국인 학부생들²⁾의 기말 과제 글쓰기 자료를 주제별로 각각 10편씩 수집하여 총 30편을 분석하였다³⁾. 작문은

2) 설문 대상은 교환학생과 중국 현지에서 1~2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대학에 편입한 학부생으로 구성하였다.

3) 글쓰기 자료는 모두 2017-2 학기 '문화의 탐구'라는 수업에서 받은 기말과제 자료이다. 받은 자료 중에 문장 부호만 쓰고 띄어 쓰지 않은 자료와 단어마다 띄어 쓴 자료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때문에 무효자료로 제외시킨다.

<영화 감상문>, <스마트폰 사용>, <김치>를 주제로 장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쓰게 하였다. 연구대상 중에 참여 의사가 있는 11명⁴⁾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표 II-1>과 같다.

<표 II-1> 설문조사 결과⁵⁾

설문 내용	설문 결과 선택 인원수(명, 총11명)			
	① 한국어를 띄어 써야 하는 것을 압니까?	알다 10	모르다 1	
② 띄어쓰기 규정을 압니까?	잘 알다 1	보통 9	모르다 1	
③ 띄어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요하다 9	보통 2	중요하지 않다 0	관심이 없다 0
④ 무엇에 따라 띄어 씁니까?	단어의 의미 1	단어의 단위 8	어감 2	
⑤ 띄어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어렵다 6	보통 3	쉽다 2	
⑥ 띄어쓰기 오류가 많이 나타납니까?	많다 3	보통 6	별로 없다 1	모르다 1
⑦ 띄어쓰기 교육이 따로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 0	없다 11		
⑧ 띄어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다 10	필요하지 않다 1		
⑨ 학습자로서 띄어쓰기가 어느 단계에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초급 7	중급 3	고급 1	

연구 결과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인터뷰에 참여 의향이 있는 3명을 선정하여 띄어쓰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띄어쓰기에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등 띄어쓰기 인식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문제는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어 띄어쓰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② 띄어쓰기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 ③ 띄어쓰기 교육을 따로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으면 띄어쓰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 ④ 개인 경험을 통해 학습자로서 한국어 띄어쓰기는 어느 단계에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 30명 중에 11명을 선택하는 이유는 연구대상이 교환학생과 학생으로 구성되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중국에 돌아간 학생들이 있어서 남은 학생들 중 참여의사를 있는 학생은 11명밖에 없었다. 인터뷰 대상은 참여 의향이 있는 학생은 3명만 있었다.
5) 구체적인 설문조사 항목 내용은 부록에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3명을 일대일의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진행 과정에 한국어를 위주로 하고 학습자가 한국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국어로 진행했다. 다음 <표 II-2>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터뷰 결과 내용이다.

<표 II-2> 학습자들의 인터뷰 결과

학습자	인터뷰 결과
A	① 중국어 붙여 쓰는 것과 달라서 어려워요. 중요해요. 한국어는 외국어로 익숙하지 않아서 띄어 쓰지 않으면 보기가 불편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② ‘명사 + 명사’ 의 경우가 어려워요. ③ 없어요. 그냥 저절로 배웠어요. 오류가 나타나면 선생님이 지적해주시고 고쳐줘요. ④ 초급이요. 초급부터 띄어 써야 하는 인식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식이 있으면 문장을 쓸 때 저절로 띄어 써요.
B	① 어려워요. 어떤 때 띄어 쓰는 것을 알아도 어떻게 띄어 쓰는지 몰라요. 중요해요. TOPIK에 작문을 쓸 때 띄어 쓰지 않으면 점수가 낮아요. ② 띄어쓰기가 알아도 어떻게 띄어 쓰는지 모르는 것이 어려워요. 한국 친구는 문자를 보낼 때 친구 줄임말을 쓰고 띄어쓰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③ 없어요. 모르면 사전과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④ 초급이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C	① 중국어하고 차이가 많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띄어 쓰지 않아도 뜻을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띄어 쓰고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② 정확하게 띄어 쓰지 못해요. ③ 없어요. 교과서를 따라서 띄어 써요. ④ 초급 학습자는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일단 띄어 써야 하는 인식만 가지게 하고 중급에 제대로 배워요.

학습자들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학습자들은 중요하다고 대답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학습자가 한 명만 있다. 학습자들은 띄어쓰기가 띄어쓰기를 알면서도 띄어쓰기 규칙을 모르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설문 대상 11명은 모두 띄어쓰기 교육을 따로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했다.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띄어 써야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강사 2명과 한국인 한국어 강사⁶⁾ 2명을 택하고 띄어쓰기 지도 경험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없으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 문제는 다음과 같다.

6) 중국인 한국어 강사 2명은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국인 강사이고 한국인 한국어 강사 2명은 한국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 ① 한국어 띄어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② 띄어쓰기를 지도할 때 학생들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③ 띄어쓰기 교육을 따로 지도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④ 개인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 한국어 띄어쓰기는 어느 단계에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 II-3> 한국어 강사들의 인터뷰 결과

한국어 강사	인터뷰 결과
한 국 인 강 사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는 띄어쓰기가 안 되면 의미 구별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한번 가봐’ 와 ‘한 번 가봐’ 의 경우, 띄어쓰기가 다르면 의미 차이가 있어요. ② 의존명사를 가장 어려워해요. 예: ‘그것이 무엇인지’ 와 ‘그것이 언제인 지’ ③ 띄어쓰기를 강조하는 편이에요. 판서를 정확히 하고 확실하게 띄어쓰기를 해서 보여줘요. ④ 등급에 맞게 필요한 띄어쓰기 교육은 계속 해야 해요.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요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란 말이 띄어쓰기가 잘못 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기 때문이에요. ② 단어와 조사의 띄어쓰기를 가장 어려워해요. ③ 원고지 사용법을 알려줄 때 지도해봤어요. 원고지 사용법이야말로 띄어쓰기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④ 초급부터 단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어휘와 문법을 초급부터 배울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중 국 인 강 사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요하죠. 한국어 교사로서 학습자들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의무가 있다. 띄어쓰기도 그중에 포함된다. ② 명사, 의존 명사 등의 결합 경우에 띄어쓰기 오류가 흔히 보일 수 있어요. ③ 있어요. 그냥 간단한 지도만 그쳤어요. 처음에 학생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많이 가르쳐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④ 초급부터 띄어쓰기 지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강 사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요해요. 제대로 띄어 쓰지 않으면 학습자들의 의미 이해에 방해가 돼요. ② 어떤 학생이 띄어쓰기를 알면서 띄어쓰기 규칙을 몰라서 어렵고 특히 명사류와 보존용언이 가장 어렵대요. ③ 따로 띄어쓰기 교육을 해본 적이 없지만 학생의 문장에 오류를 발견하면 지적하고 고쳐줘요. ④ 초급에 기초 지식을 몰라서 중급에 띄어쓰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인터뷰한 교사 4명은 모두 띄어쓰기가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학습자들은 명사, 의존명사의 경우를 제일 어려워하고 나타났다. 교사 4명 중 띄어쓰기 교육이 따로 없다는 교사가 중국인 교사 1명만 있다. 중국에서 띄어쓰기 교육이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띄어쓰기 교육에 대해 초급부터 시작하고 등급에 맞게 필요한 띄어쓰기 교육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은 좋다고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오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띄어 써야 할 것을 불

여 쓴 경우와 붙여 써야 할 것을 띄어 쓴 경우이다.⁷⁾ 학습자들의 글쓰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48회 띄어쓰기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오류(77.6%)는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오류(22.4%)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결과는 다음 <표 II-4>과 같다.

<표 II-4> 띄어쓰기 오류 분석 결과

		오류 유형	오류 횟수	오류 빈도 %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오류	체언	명사 + 명사	27	18.2%
		관형사(형) + 명사	17	11.5%
		대명사 + 명사	1	0.7%
		고유명사	1	0.7%
	용언	명사 + 의존명사	15	10.1%
		의존명사 관형사(형) + 의존명사	18	12.1%
		본용언 + 보조용언	13	8.8%
		부사 + 용언	4	2.7%
		명사 + 용언	13	8.8%
		기타	6	4.1%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오류	조사	15	10.1%	
	접사	5	3.4%	
	어미	2	1.4%	
	한 단어를 두 단어로 인식	9	6.1%	
	기타	2	1.4%	
		총계	148	100%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경우는 크게 체언과 용언으로 분류하고, 체언은 다시 명사, 의존명사로 구분하였다.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오류는 ‘명사+명사(27회, 18.2%)’, ‘관형사(형)+명사(17회, 11.5%)’, ‘명사+의존명사(15회, 10.1%)’, ‘관형사(형)+의존명사(18회, 12.1%)’, ‘본용언+보조용언(13회, 8.8%)’ 등에서 많이 나타났다.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오류로는 ‘조사 오류(15회, 10.1%)’, ‘한 단어를 두 단어로 인식한 오류(9회, 6.1%)’ 등이 높게 나타났다.

1.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오류

1) 체언과 관련된 오류

(1) 명사+명사

<표 II-4>의 분석 결과에서 ‘명사+명사’는 27회(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오류는 명사와 명사를 원래 두 단어로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의 단어로 간주해서 범한 결과이다. 중국

7) 학습자들의 글쓰기에서 띄어쓰기 오류와 다른 오류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띄어쓰기 오류만 선택하였다. 그리고 한 주제의 글쓰기에서 중복된 오류는 하나의 오류로 보았다.

어 단어 하나는 한국어로는 두 개의 자립형태소(단어)가 되기 때문이다. 아래 오류 예문은 모두 두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여 띄어 쓰지 않은 오류이다.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한국사람들 → 한국 사람들 하루종일 → 하루 종일
 평소때 → 평소 때 얼마전에 → 얼마 전에

(2) 관형사(형)+명사

‘관형사+명사’ 오류와 ‘관형사형+명사’ 오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예문 ②ㄱ은 ‘관형사+명사’ 띄어쓰기 오류 유형이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뜻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품사이다.⁸⁾ 관형사는 성상 관형사와 지시 관형사, 그리고 수 관형사로 구분된다. ‘무슨’은 의문의 지시관형사이고 ‘여러’는 명확한 수를 표시하지 않는 ‘부정(不定)’의 의미를 지닌 수관형사이므로 뒤에 오는 명사와 띄어 써야 한다. 예문 ②ㄴ은 ‘관형사형+명사’ 띄어쓰기 오류 유형이다. 관형사형은 관형사처럼 체언을 꾸미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앞의 말에 대해서 서술어, 그 뒤의 말에 대해서는 관형어 구실을 한다.⁹⁾ 용언의 관형사형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 등과 같이 어미가 결합된 형식이므로 뒤에 오는 명사와 띄어 써야 한다.

- ② ㄱ. 무슨일 → 무슨 일 여러가지 → 여러 가지
 ㄴ. 빠른속도 → 빠른 속도 좋아하는여자 → 좋아하는 여자

(3) 대명사+명사

대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로 정의된다. 대명사는 체언에 속하는 품사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띄어쓰기 오류로 나타난 대명사는 ‘우리, 내’처럼 인칭 대명사가 주를 이룬다. 대명사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을 제외하고는 다른 명사와 같이 사용될 때에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 ③ 우리생활 → 우리 생활 내친구 → 내 친구

(4) 고유명사

<표 II-4>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유명사에 관한 오류는 많지 않았지만 쉽게 범하는 오류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글 맞춤법의 제48항에 따르면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

8) 고영근·구본관(2015: 123) 참조.

9) 관형어는 문장성분 요소로 관형사와 관형사형 어미를 포함한다.

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④ 정원섭씨 → 정원섭 씨

(5) 명사+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의지하여 쓰이는 명사, 즉 불완전한 명사를 가리킨다. 명사와 의존명사는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명사+의존명사’에 관한 띄어쓰기 오류는 15회(10.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⑤ 생활중에 → 생활 중에 영화등 → 영화 등

가족때문에 → 가족 때문에 다음편 → 다음 편

(6) 관형사(형)+의존명사

의존명사는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오류 유형은 ‘관형사+의존명사’ 오류 유형과 ‘관형사형+의존명사’ 오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관형사(형)+의존명사’ 오류 유형은 12.1%로 수관형사가 주를 이루었다. 예문 ⑥ㄱ은 ‘수관형사+의존명사’에 관한 띄어쓰기 오류 예이다. ‘관형사형+의존명사’ 오류는 ‘관형사+의존명사’ 오류보다 두 배 정도 많이 나타났다.

⑥ ㄱ. 학생한명 → 학생 한 명 한달전에 → 한 달 전에

 첫만남 → 첫 만남 첫면 → 첫 면

 ㄴ. 먹는것 → 먹는 것 아닌줄 → 아닌 줄

 해낼수 있다 → 해낼 수 있다 할수없다 → 할 수 없다

2) 용언과 관련된 오류

(1) 본용언+보조용언

한글 맞춤법 제47항에 따르면 보조용언에 대해서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도와 드리다’는 원칙이고 ‘도와드리다’도 허용된다. 하지만 보조용언은 모두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⑦ㄱ처럼 연결어미 ‘-지’는 ‘않다, 못하다’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보조용언과 연결되면 띄어 써야 한다. 연결어미 ‘-어야’와 ‘하다’를 연결할 때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야 하다’처럼 띄어 써야 한다. 예문 ⑦ㄴ은 연결어미 ‘-고’와 연결하여 띄어쓰기 오류를 범한 예문이다. ‘-고’와 같이 연결되는 보조용언 ‘있다’, ‘싫다’ 등은 띄어 써야 한다. 예문 ⑦ㄹ의 연결어미 ‘-게’는 보조용언 ‘되다’와 붙여 쓴 오류인데 띄어 써야 한다.

- ⑦ 가. 하지못해 → 하지 못해 사용하지않다 → 사용하지 않다
 나. 해야한다 → 해야 한다 노력해야한다 → 노력해야 한다
 다. 늘어나고있다 → 늘어나고 있다 알려주고싶다 → 알려주고 싶다
 르. 보게되다 →보게 되다 하게되었다 → 하게 되었다

(2) 부사+용언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용언과 용언 앞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부사는 하나의 단어로 쓰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 ⑧ 안보이지만 → 안 보이지만 너무좋아해서 → 너무 좋아해서
 같이있습니다 → 같이 있습니다 다사고 싶다 → 다 사고 싶다

(3) 명사+용언

‘명사+용언’의 경우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 아래 예문은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여 붙여 쓴 오류이다.

- ⑨ 쓸모없다 → 쓸모 없다 필요없다 → 필요 없다

2.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오류

(1) 조사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의 뒤에서 체언이나 체언 상당어의 쓰임을 한정시켜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존 형식을 조사라고 한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했다. 학교문법에서 분리성이 인정되는 준자립성을 가지므로 조사를 단어로 보지만, 독립성이 없고 체언 뒤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¹⁰⁾

- ⑩ 스마트 폰 이 → 스마트폰이 될 수 밖에 없다 → 될 수밖에 없다
 옛날 부터 → 옛날부터 할 수 도 있다 → 할 수도 있다
 행복 이라는 뜻은 → 행복이라는 뜻은

(2) 접사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어근 앞에 또는 어근 뒤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기능을

10)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5: 140-141), 참조.

한다. 주로 접두사와 접미사가 있다. 접사는 형식형태소로 용언 어근이나 체언 어기에 붙여 써야 한다.

- ⑪ 멋 지다 → 멋지다¹¹⁾ 교류 하다 → 교류하다
- 빋 나가다 → 빋나가다 글썽 이다 → 글썽이다

(3) 어미

어미는 붙여 써야 한다. 다음은 어미와 관련된 띄어쓰기 오류의 예이다.

- ⑫ 먹어야 겠다 → 먹어야겠다
-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 →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4) 한 단어를 두 단어로 인식

학습자들이 하나의 단어를 두 단어로 인식하여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오류를 범하였다.

- ⑬ 스마트 폰 → 스마트폰 새 해 → 새해 일기 예보 → 일기예보

3. 띄어쓰기 오류 원인

앞에 제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띄어쓰기 오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원인은 크게 한·중 언어 차이 측면, 학습자 인식 측면, 교수·학습 측면, 외부적 환경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한·중 언어 차이 요인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맞춤법 뒤에 띄어쓰기 부분은 제41항부터 제50항까지 예외들이 많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띄어쓰기 오류가 생기는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제47항의 내용을 보면 보조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은 띄어 쓴다고 했는데 이런 예외적인 조항이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띄어쓰기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교착어인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의 경우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없고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모두 문장 부호로 띄어쓰기가 이루어진다. 문장의 종결은 문장의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이유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중국어 단어의 의미에 따라 띄어 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띄어쓰기 오류 유형 중

11) '-지다'는 그런 성질이 있거나 그런 모양의 뜻을 더하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 하나가 ‘명사+명사’ 유형이다. 예를 들면, 오류 예문 ‘한국사람들’ 같은 오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범하는 오류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고유어 ‘한국사람’ 과 한자어 ‘한국인’ 은 같은 뜻이기 때문에 ‘한국인’ 이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중국어는 ‘韓國人’ 이다. 의미에 따라 띄어쓰기를 판단하는 중국인 학습자는 이런 경우 한 덩어리로 보게 된다. 중국인 성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울 때 머릿속에 이미 중국어라는 언어 체계가 인식돼 있어서 모국어 간접 요인으로 한국어 띄어쓰기에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오류 유형 중에 한 단어를 두 단어로 인식하는 오류도 있다. 중국어에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모든 단어를 가급적 띄어 쓰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에 과잉 띄어쓰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띄어쓰기 규범 제41항에 따르면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고 했다. 한국어와 비교하면 중국어에는 조사와 대응되는 개사(介詞)가 있는데 주로 시간, 방향, 수단, 원인 등을 표시하지만 격조사가 없다. 하지만 격조사의 띄어쓰기 규칙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아서 오류율이 비교적 낮지만, 중국인 학습자들 대부분이 조사 두 개를 연속해서 쓸 때 오류를 범한다. ‘옛날에부터(→ 옛날부터)’, 또는 ‘산에서 부터(→산에서부터)’, 그리고 ‘할 수 도 있다’ 에서처럼 의존명사와 조사를 구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한다.

2) 학습자 인식 요인

한글 띄어쓰기 규정이 복잡한 데다 중국어는 붙여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문법적 지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띄어쓰기 규정 자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또 학습자가 띄어 써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띄어쓰기 지식이 부족해서, 어떻게 띄어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띄어쓰기가 중요하지 않고 띄어쓰기 교육이 필요 없다는 학습자도 있다. 그 이유는 모국어에 띄어쓰기가 없고 한국어를 띄어 쓰지 않아도 뜻을 대충 이해할 수 있고, 컴퓨터 한글 작성 프로그램을 자동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한국어 띄어쓰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중국인 학습자의 일부는 중국어처럼 한국어를 띄어 쓰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한국어를 배울 때 띄어쓰기를 중요시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또 일부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가 중국어와는 달리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 써야 한다는 인식으로 조사를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하여 띄어 쓰는 등 글쓰기 자료 전체를 띄어 쓰는 것에 치우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모국어 영향을 받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띄어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다. 총체적으로 중국인 글쓰기 자료에서 나타난 띄어쓰기 오류를 살펴보면 ‘붙여 쓴 오류’ 가 ‘띄어 쓴 오류’ 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3) 교수·학습 요인

교육적 원인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띄어쓰기 내용에 대해 어떻게 교수하는지와 교재에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질의 방법으로 인식 양상과 오류 양상을 고찰 분석한 결과, 교수 학습 과정에서 띄어쓰기에 대한 학습을 따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나왔다. 그리고 여러 대학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 띄어쓰기에 관한 설명이 거의 없었다.¹²⁾ 한국어 강사들의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2명 한국인 강사는 초급부터 띄어쓰기 교육을 지도하고 상대적으로 띄어쓰기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반대로 중국인 교사는 한 명은 수업에서 따로 지도해본 적이 있고 한 명은 없다고 나왔다. 중국 현지에서 띄어쓰기 교육이 불균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처음에 모두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웠다는 점을 고려해서 교수·학습 요인은 띄어쓰기 오류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소홀이 볼 수 없다. 교육 현장에서 띄어쓰기에 대한 교수·학습이 부족하고, 교재에도 띄어쓰기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띄어쓰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4) 외부 환경적 요인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또 한 가지 원인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외부 환경적 원인이다. 학습자들 답변에 의하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판 등에 쓰여진 올바르지 않은 띄어쓰기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따라할 뿐이라고 했다. 박덕유(2010)에서는 지하철의 광고 언어를 수집하여 국어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광고 언어의 오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는데 이 오류들 중에는 띄어쓰기 오류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언어는 경제성과 신속성의 영향을 받아 현대인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가 흔히 저지르는 맞춤법의 무시와 함께 붙여쓰기의 오류 현상을 외국인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수용하여 사용한다. 이런 점은 학습자들이 한국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작문 자료를 분석할 때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작문은 워드(word)보다 띄어쓰기 오류 빈도수가 훨씬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한글로 작성할 때 띄어쓰기가 틀린 부분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를 보고 대부분 수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제 글쓰기나 TOPIK 등의 필기시험에서 어떻게 띄어 쓰는지 모른다고 했다.

12) 본고는 『서울한국어』, 『연세한국어』, 『표준한국어(标准韩国语)』을 분석했는데 띄어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이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띄어쓰기 교육 지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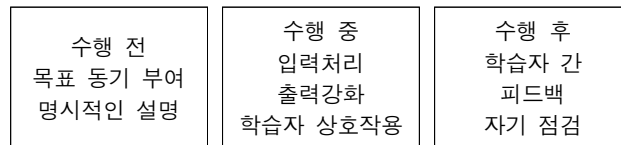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띄어쓰기 오류 양상과 설문조사, 그리고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고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띄어쓰기에 대한 인식이나 기준이나 지식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띄어쓰기 관련 문법 내용부터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띄어쓰기 오류 유형이 조사와 명사에 집중된 만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띄어쓰기를 몇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면 교육 시간도 길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좋을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문법 지도하기 전에 우선 띄어쓰기 인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수자도 마찬가지다. 중국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강사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보면 띄어쓰기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휘적 요소와 문법적 요소에 의한 구분이다. Long(1998)은 언어 교수 접근법을 형태를 중시한 형태 중심 접근 방법, 언어의 의미와 기능을 중시한 의미 중심 접근 방법, 그리고 형태와 의미를 결합한 형태초점 의사소통 접근법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¹³⁾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의 변천에 대해 이미혜(2005: 150)는 형태 중심 접근법에서 의미 중심 접근법으로 이어오다가 1990년대 이후 형태와 의미를 모두를 중시하는 형태초점 의사소통 교수법이 대두되었다고 했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띄어쓰기 오류 실태와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에 대한 분석으로 구체적인 문법 지도 방향은 주로 귀납적 측면과 연역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제시한다. 연역과 귀납은 문법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이다. 연역적 방법은 규칙을 먼저 제시하면서 언어 자료를 설명한 후 이를 예에 적용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명시적으로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시간을 단축하고, 학습자의 노력을 절약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귀납적인 방법은 언어 자료로부터 규칙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선호할 수 있는 주제로 수업을 도입할 수 있으므로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본고는 띄어쓰기 오류 유형의 특성을 맞춰서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지도 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앞에서 제시했듯이 중국인 학습자 작문에 오류율이 높은 띄어쓰기 유형은 주로 ‘명사+명사’, ‘관형사(형)+명사’, ‘관형사(형)+의존명사’, ‘조사’ 등이다. 따라서 본고는 각 방법의 장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 오류율이 높은 조사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명사류는 연역적인 방법으로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지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역적인 방법



[그림 III-1] 연역적 절차 중심 단계

13) 민찬규(2002), 재인용.

연역 중심의 학습 단계 모형은 [그림 III-1]과 같다. 연역적인 지도 방법은 교사의 설명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법 항목 간의 차이 혹은 문법 항목의 개별 특성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는 필요한 형태들이 대상이 된다. 교재에서 제시하지 않은 내용이나 학습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내용, 아니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문법 항목들이다. 따라서 이런 항목들을 자연스럽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형태에 집중하면서 의미에도 초점을 맞추어 수행 전에 제시된 문법 항목 규칙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인식하여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문법 항목들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명사+명사’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는 명사의 의미를 알아야 띄어쓰기도 이해할 수 있다. 의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띄어쓰기를 요구하면 제대로 띄어 쓸 수가 없다.¹⁴⁾

제시된 명시적인 설명을 통해 알게 된 띄어쓰기 규범을 여러 가지 입력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점검해 볼 수 있고 출력 강화를 통해 명사와 의존 명사 띄어쓰기 규칙에 집중하면서 의미를 고려하여 띄어쓰기 규칙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한국+사람들’의 경우 단어와 단어는 띄어 써야 한다는 원리를 통해 명시적인 설명을 하고, 연습문제를 통해 입력처리와 출력강화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명사에 대한 띄어쓰기를 정리한다. 다음은 명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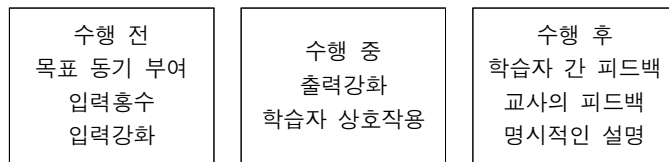
<p>수행 전</p> <p>1. 먼저 교사는 학습자에게 띄어쓰기가 없는 글쓰기 자료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 준다. 자료 예시: 오늘은비가올듯싶어요. 오전에는맑다가오후들어번개와천둥이찾아서많은비가내렸어요.</p> <p>2. 명사에 관한 띄어쓰기 규칙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명사의 개념, 종류 등도 명시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설명해 준다.¹⁵⁾ 명사의 개념 및 종류: 사물의 명칭을 표시한 단어의 묶음을 명사라고 한다. 고유성의 여부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뉜다. 자립성 여부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가 있다. 유정성의 유무에 따라 유정 명사와 무정 명사가 있다.¹⁶⁾ 한글 맞춤법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한글 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p> <p>수행</p> <p>위의 설명 중 이해 예시를 통해 띄어쓰기 실제 형태와 단어 의미 사이의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명사에 대한 띄어쓰기 학습을 유도한다. 유도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명사의 띄어쓰기에 대한 사용 규범을 이</p>

14) 그러나 의미에만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면서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형태에 초점을 두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p>해하고 이어서 연습 문제를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산출 활동을 진행할 때 교사는 먼저 학습자들이 스스로 연습 문제에 답을 쓰게 한 다음에 학습자들 몇 명씩 소그룹으로 구성하고, 앞에서 배운 띄어쓰기 규범대로 연습 문제에 대한 답을 서로 토의하여 통일된 답을 산출하게 한다. 학습자들이 답을 모두 완성한 후 교사는 연습 문제의 정답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해 준다.</p> <p>연습 문제: 아래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띄어쓰기 하십시오.</p> <p>예시: _____ (한국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해서 매일 김치를 먹어요.) _____ (그사람이내친구야.) _____ (나도 할수있다.) _____ (한달전에 논문을 한편 썼다) _____ (내일오후 김민호교수님의 수업이다)</p>
<p>수행 후</p> <p>이 부분은 피드백 단계이다. 먼저 학습자들의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그 다음은 소그룹에서 학습자 간에 피드백을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답에 대한 마무리 피드백을 준다. 최종적으로 학습자들은 명사의 띄어쓰기 규칙에 대한 지식을 자기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p>

2. 귀납적인 방법

[그림 III-2]와 같이 귀납적 절차 중심 단계는 여러 가지의 예문 제시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형태에 주목하여 문법 형태의 용법을 추측하고 확인한 후 교사의 설명이나 학습자 간의 피드백을 통해 대상 형태의 규칙이나 특성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 제시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학습하는 것은 띄어쓰기가 없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와 달리 이런 새로운 규범을 내재화해야 정확하게 띄어 쓸 수 있다. 오류를 많이 범하는 조사와 관련된 띄어쓰기 규칙은 귀납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도하는 좋은 예이다.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옛날+부터’의 경우 조사는 체언 뒤에 붙여 쓴다는 문법적 관계를 통해 앞말의 의미가 아무리 변해도 그 앞말에 붙여 쓰는 연습을 반복한다. 즉, 조사와 같은 띄어쓰기 규범을 배울 때 학습자들은 형태에 주목하면서 스스로 규칙을 발견함으로써 조사의 띄어쓰기 규칙을 파악하고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III-2] 귀납적 절차 중심 단계

- 15) 중국 현지 대학에서 말하기 수업을 제외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거의 중국인 교사이다. 2학년 학생들에게 한국어 전문용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잘 이해시키기 위해 중국어로 설명한다.
- 16) 박덕유(2012: 122-123) 참조.

귀납적 중심 단계의 구성 내용은 우선 많은 자료의 입력을 통해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 항목에 주목하여 이런 과정을 통해 목표 항목의 사용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는 입력 자료가 시각적 입력 강화를 사용하여 밑줄을 치거나 볼드체 등의 방식을 사용해 주목할 수 있도록 뚜렷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혼자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습자들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규칙을 공통적으로 추측하여 최종적으로 학습자가 결과를 산출한다. 이때는 교사와 학습자 간의 피드백을 통해 오류를 수정한다. 마지막 부분은 교사의 명시적인 규칙 설명을 통해 학습자가 산출한 규칙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다. 다음은 조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p>수행 전</p> <p>1. 먼저 교사는 학습자에게 띄어쓰기가 없는 글쓰기 자료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 준다.</p> <p>자료 예시: 오늘은비가올듯싶어요. 오전에는맑다가오후들어번개와천둥이жат아서많은비가내렸어요.</p>
<p>수행</p> <p>입력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입력 자료에 조사 띄어쓰기 형태는 볼드체, 색깔 바꾸기 등 방식을 사용해 주목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p> <p>입력 자료 예시: 꽃이 / 꽃처럼 / 꽃마저 / 꽃밖에 / 꽃에서부터 / 꽃으로만</p> <p>위의 입력 자료를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띄어쓰기에 대한 의식을 갖고 조사의 띄어쓰기 규칙을 스스로 발견한다. 이어서 학습자들은 자기가 귀납한 규칙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를 푼다. 다음으로 소그룹별로 답을 토의하고 동일한 답을 산출한다. 여러 번의 답의 산출을 통해 학습자들은 조사 띄어쓰기 규칙을 정리하여 연습한다.</p> <p>연습 문제: 아래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띄어쓰기 하십시오. 예시: _____ (오늘은날씨가더울 거예요) _____ (주말에영화를보고 싶습니다)</p>
<p>수행 후</p> <p>산출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 간의 피드백 혹은 교사의 오류 수정 피드백은 학습자가 해당 형태(조사 띄어쓰기)의 규칙에 대한 가설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 부분은 교사의 명시적인 규칙 설명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이 전에 세운 규칙 가설이 맞는지 확인한다.</p> <p>명시적인 설명</p> <p>조사 개념: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관계사이다.¹⁷⁾</p> <p>한글 맞춤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p> <p>뿐, 대로, 만큼, 만</p> <p>예시: 뿐 ① 조사(앞말과 붙여 쓴다) 가진 것은 이것뿐이다. ② 의존 명사(앞말과 띄어 쓴다)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p>

17) 박덕유(2012: 127) 참조.

IV. 맺음말

이상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띄어쓰기 오류 양상을 주로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쓴 오류’와 ‘붙여 써야 하는데 띄어 쓴 오류’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오류 분석 결과 붙여 쓴 오류 빈도(77.6%)는 띄어 쓴 오류 빈도(22.4%)보다 거의 4배 정도 많았다. 띄어 쓴 오류 중에 ‘명사+명사’ (18.2%) 빈도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관형사(형)+의존명사’ (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띄어 쓴 오류 중에 ‘조사’의 빈도수가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띄어쓰기 규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고립어인 중국어와 교착어인 한국어의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보 전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띄어쓰기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연역적 측면과 귀납적 측면에서 입각하여 띄어쓰기 지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역적인 방법은 명사류의 띄어쓰기 규칙을 예문으로 기술하였고, 귀납적인 방법은 조사의 띄어쓰기 규칙을 예시로 기술하였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는 교육할 문법 항목의 특성과 학습자의 특성 및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고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글쓰기 자료에 나타난 띄어쓰기 오류를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 내용을 통해 오류 원인을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띄어쓰기 교육 지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의 띄어쓰기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 방향을 제시하지만 검증은 못 받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 구본관(2015).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 곽자범(201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띄어쓰기 학습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지영 외(2016). **한국어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두흔(2013). 입력강화를 활용한 한국어 띄어쓰기 교수의 효과: 중급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학연구**, 31, 435-465.
- 민찬규(2002). 형태 초점 의사 소통 접근 방법:교수법적 특징과 영어교육에의 적용방안, **외국어교육**, 9, 68-88.
- 박덕유(2010). 지하철 광고(廣告) 언어(言語)의 오용(誤用) 실태와 개선 방안, **새국어교육**, 85, 433-453.
- 박덕유(2012). **학교 문법론의 이해**, 서울: 역락.
- 박봉수·박덕유(2015). 결혼이주여성의 작문에 나타난 띄어쓰기 오류 실태 및 지도 방향, **교육문화연구**, 21(3), 149-178.
- 박종호·김보은(2014). 대학생들의 띄어쓰기 사용 실태 분석과 그 교육 방안 연구: 교양 글쓰기 수강 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8, 93-132.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3). **연세한국어**. 출판대학교 출판부.
- 완자미(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띄어쓰기 실태와 지도 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정(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띄어쓰기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2005).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 추측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희·이상기(2016). 입력과 출력 중심의 형태 초점 교수법이 초등 영어 학습의 문법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883-903.
- 이혜경(2013).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띄어쓰기 지도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5).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14), **한국어 교육학 사전**, 하우.
-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13). **서울한국어**, 문진미디어.
- 송유주(2016). 학문 목적 학습자 대상 띄어쓰기 교육을 위한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로(2012), 중국인 초·중급 학습자의 한국어 띄어쓰기 오류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효민(2012), 한국어 교육에서 띄어쓰기의 오류 원인과 오류 분석: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90, 389-407.
- 하안나(2016),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띄어쓰기 사용실태와 교수 학습 방안, **한어문교육** 35, 247-265.

- Doughty, C & Williams, J(1998), *"Pedagogical choices in focus on form. In C. Doughty & J. Williams, (Eds),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ada, N(1997). Form-focussed instruc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review of classroom and laboratory research, *Language Teaching* 30-2, pp73-87.
- Long, M. H. (1991). Focus on form: A design feature i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In K. de Bot, R. G. Ginsberg, & C. Kramsch (Eds.),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Philadelphia: Benjamins. pp39-52.
- 北京大学 等 25所大学(2014). 『标准韩国语(1-3)』, 北京大学出版社.

부록

설문조사

본 설문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의 효율적인 띄어쓰기 교육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_____ (예: 중국 대학 / 한국 언어교육원 등)

한국어를 배운 기간 : 1년 이하 / 1-2년 / 2-3년 / 3년 이상

한국어급수: 초급 / 중급/ 고급

설문조사 문항

1.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를 띄어 써야 하는 것을 압니까?
① 모르다 ② 알다
2. 한국어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을 압니까?
① 잘 알다 ② 보통이다 ③ 모르다
3. 한국어 띄어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중요하다 ② 보통이다 ③ 중요하지 않다 ④ 관심이 없다
4. 한국어를 쓸 때 무엇에 따라 띄어 씁니까?
① 단어의 의미 ② 단어의 단위 ③ 어감
5. 한국어 띄어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① 어렵다 ② 보통이다 ③ 쉽다
6. 한국어를 쓸 때 띄어쓰기 오류가 많이 나타납니까?
① 많다 ② 보통이다 ③ 별로 없다 ④ 모르다
7. 한국어 띄어쓰기 교육을 따로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학습자로서 본인은 한국어 띄어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9. 개인 경험을 통해 학습자로서 한국어 띄어쓰기는 어느 단계에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초급 ② 중급 ③ 고급
10. 본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 띄어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Abstract

An Analysis of Korean Word Spacing Errors Made by Chinese Learners

Yuan Wang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spacing errors in Chinese students' Korean writing and to propose changes for the teaching methods used for Chinese learners by analyzing the causes of errors. By analyzing the learners' writing samples, a total of 148 space errors were found. The rates of errors (77.6%) that were made by combining separate words is much higher than the errors (22.4%) that were made by placing a space within a compound word. Among the error types, "noun + noun," "observer (type) + dependent noun," and postpositional particle errors occur most frequently.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irection of spacing starting from the deductive side and the inductive side for nouns and investigations.

Key words : *Chinese learners, Korean spacing error, cause of error, teaching method*

논문투고일자: 2019.2.28.

논문심사일자: 2019.4.23.

게재확정일자: 2019.4.27.